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5월 24일(주일) 제1050호

부모 전도는 '행복드림콘서트'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를 딸이 열싸안고 있다.

전도대상자 356명 중 248명 결신, 72명 긍정 답변 6월 6일 후속프로그램 '기차여행' ... 6월 17일 세례식

부모초청 맞춤형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전도대상자 356명 중 248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72명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부모초청 맞춤형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지난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65세 이상 부모 356명이 자녀들의 초청을 받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개그맨 이홍렬의 토크쇼, 가수 노사연, 아무송 부부의 공연, 배우 강석우의 색소폰 연주, 방송인 오미희의 시낭송, 퓨전국악팀 가이랑의 공연, 박진아작가의 샌드아트메이선,

전도대상자들의 순자녀들의 위십공연, 자녀들의 영상메시지 상영,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가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부모들은 자녀들과 교회의 극진한 섬김과 기도 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

행복드림콘서트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의 중보기도와 전도본부의 탁월한 기획과 집회운영, 연예인 게스트와 가족들의 영상메시지 등이 하모니를 이룬 결과다.

이제 부모초청 맞춤형전도집회는 온누리교회를 넘어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다. 부모를 전

도하는 가장 탁월한 전도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틀림없다.

전도집회가 끝이 아니다.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월 6일 전도대상자와 가족들이 '3대가 함께하는 기차여행'을 간다. 6월 둘째 주에 교육을 받고, 17일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부모초청 맞춤형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도대상자 426명 중 34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긍정 답변까지 합치면 전도대상자 81%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해가 갈수록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다. <관련기사8면>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15 북한사역 서밋(Summit)'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와 컴패션(Compassion)이 손잡고 북한 어린이 사역을 준비한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다케이호텔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2015 북한사역 서밋(Summit)'에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 전체가 참가한다. 북한사역 서밋은 북한 어린이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훈련방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 북한사역 서밋에는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의 미래와 교회의 역할, 전인적 양육, 북한 어린이 양육을 위한 사역자 훈련 등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 전우택 교수(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스캇 토드(국제컴패션 글로벌에드보커시 부총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신티아고 지미메아도(국제컴패션 총제)가 강의한다.

한국 컴패션은 1952년부터 어린이 사역을 시작해 현재 26개국에서 140만 명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여호수아 캠프 6월 6일 시작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오는 6월 6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여호수아 캠프(Joshua Camp)'다. 주일학교 교사 및 여름캠프를 준비하는 성도, 국내외 이웃 리치(여름성경학교 위임댄스)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는 6월 6일 서빙고를 시작으로, 13일 부천과 수원, 대전, 20일 양재에서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에서도 열린다. 6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청도 온누리교회, 6월 28일부터 3박4일 동안 상해 온누리교회, 대련과 단둥 온누리교회는 2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등록비를 입금하고 확인전화를 하면 된다. 5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만5천원, 당일등록은 2만원이다.

문의: 02-3215-3521, 570-7436

계좌: 하나은행 573-910003-60104

예금주: 온누리교회어드벤처

온누리교회 사랑부 27주년_ 장애인과 함께한 사람들

장애인과 함께 울고 웃은 김요성 목사 가족

남편, 아내, 남동생, 여동생 모두 사랑부 출신

부천 온누리교회 김요성 목사 가족은 장애인 부서에서 유명인사다. 그들은 1994년부터 사랑부와 함께 울고 웃었다.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들보다 먼저 구슬땀 흘린 초창기 멤버다. 김요성 목사, 그의 아내 박인숙 사모, 동생 김영선, 김미선 성도까지 온 가족이 장애인을 섬기는데 헌신했다. 그 섬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김요성 목사와 그의 동생 김영선 성도(예수사랑부 교사)를 만나 장애인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들어보았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어느 날 차세대 예배에 장애인 아이가 하나 왔어요. 사랑부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둘씩 장애인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요성 목사는 1994년 사랑부에 왔다. 아내 박인숙 사모가 사랑부 교사였는데 당시 사랑부에 찬양팀원이 턱없이 부족하자 김요성 목사에게 찬양팀을 섬겨주지 않겠냐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김 목사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사랑부 찬양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10년 뒤 2003년에 사랑부 전도사가 되었다.

김요성 목사는 오랫동안 사랑부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일을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꼽았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김 목사는 사랑부를 섬기면서 유독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교사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김 목사에게 큰 도전을 줬던 교사들 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도 많았다.

김 목사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자세를 배웠다고 했다.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도 했다. 지금 사랑부 교사들도 그마음 그대로 섬기고 있다고 칭찬했다.

훈이 가출사건

사랑부를 섬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바로 ‘훈이(가명) 가출사건’이다. 훈이는 부모가 잠자리도 한 눈을 팔면 집을 나갔다. 일산에 살던 훈이가 집을 나가면 어김없이 사랑부 교사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가 왔다.

“우리 훈이가 집을 나가서 부모님이 찾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시간은 대부분 저녁이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랑부 교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퇴근 후에 지하철을 탔다. CCTV를 확인하고 일산에서부터 서울로 오는지 하철을 모두 뒤졌다. 지금은 웃으면서 화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 내려앉는 일이었다. 김 목사는 그때 그 시간이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십자가를 나눠지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경험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부 모든 교사들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훈이를



김영선 성도와 김요성 목사(가운데), 박인숙 사모.

찾았는데 힘들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사히 훈이를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김 목사는 지금도 사랑부 아이들을 격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청년들이 졸업한 이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지 염려하고 있다. 장애인 청년들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는다. 김 목사는 그 청년들이 위식과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교회나 협력기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시설과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형에 그 아우

김요성 목사의 남동생이자 예수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선 성도는 김 목사의 추천으로 1997년 온누리교회 장애인부서에 왔다. 형 곁에서 사역을 돕고 싶어서 장애인 부서에 오게 되었다. 여동생 김미선 성도도 함께했다. 여동생은 사랑부에서 반주를 맡고 형수 박인숙 사모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형 김요성 목사는 사랑부 담당교역자인데 자기만 빠질 수 없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사랑부에서 여름캠프를 한다고 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한번 섬기고 보니 사랑부 아이들이 잊히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떠올라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다. 제대를 하고 2003년부터는 사랑부 정식 교사가 되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그는 “휴가 나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재미있었지만 사랑부 여름캠프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사랑부의 교사다. 그가 2004년 괄모로 단기선교를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때마침 사랑부 온누리교회는 예수사랑부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예수사랑부 찬양 인도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곧장 섬기기 시작했다. 그 형에 그 아우가 따로 없다.

김영선 성도 말고도 장애인 부서에는 귀한 손길이 많았다. 김영선 성도는 예수사랑부 허왕호 성도를 강력 추천했다. 허왕호 성도는 2004년 예수사랑부가 출범했을 때 김영선 성도와 함께 사랑부에서 예수사랑부로 건너왔다. 허왕호 성도는 다른 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도 빠지지 않고 섬기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것도 모자라 중보기도 모임에도 결석한 적이 없다. 허

왕호 성도는 최근 한 중학교에서 장애인 보조교사로 일하게 됐다. 사랑부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섬긴 경험이 직장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교사들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거저 받지 않으신다”며 감탄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선 성도는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꿈은 같다고 했다. 장애인 청년들이 스스로 없이 장난도 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교사로 남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성도의 마지막 말에 그의 진심이 담겼다.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지만 학문적, 지식적으로 섬기는 교사가 아닌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그들 곁에 있습니다.”

사랑부 창립 27주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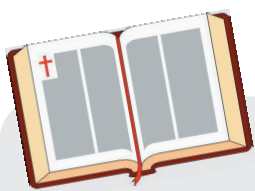
“장애 청년들이 하나님 소망 전하는 통로 되길”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장애인 한 명을 위해 시작된 사랑부가 이제는 330명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지난 17일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사랑부 창립 2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야외에서 드린 기념예배에는 사랑부와 꿈사랑부 청년들, 장애인부서 리더십과 교사, 학부모가 참석했다.

장애인사역본부 박철웅 목사는 “사랑부와 꿈사랑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영광

출 40:34~38

“그 영광스런 구름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가볍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문화를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무겁다는 의미의 ‘카베드’에서 기원했습니다. 히브리 시대에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힘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무겁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육축과 재산이 풍부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풍부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도 무겁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겁다’는 단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원했습니다. 영광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게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게 있는 분이신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기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롬 3:23).

죄 때문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 영광이 무게를 잃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소유, 권력, 명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공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한 장소에 머물기 위해 만든 집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시대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표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이 왜 한 장소에만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들과 동행하겠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하기까지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재료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기꺼이,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서 재료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출 35:29).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그만 가져오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재료를 가져다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나온 자발적 헌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둘째, 정교하고 탁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출 36:1-2).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정교한 기술과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청사진을 보면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집을 짓는 기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탁월한 재능과 기술, 탁월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해서 어리석게 살아야 된다고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식과 탁월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기술과 재능, 지식을 부여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셋째,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출 39:32).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아웃라인만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까지 주셨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한 청사진을 주셨

습니다. 조금도 바꿀 수 없고, 조금도 더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재료로, 말씀하신 수치대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들은 대로만 성막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드린 재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와 기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절대적 순종이 합해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와 영광의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하는 모든 일에 자발적 헌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 절대적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여호와와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새로운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성막도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 관계의 회복

바로 그때 성막에 구름이 덮여졌다고 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여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회복을 의미합니다. 포옹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끊어졌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이 구름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막에 덮여진 구름은 마치 하나님이 백성을 덮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 청사진을 주실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역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관계를 지속하셨습니다.

성막은 진멸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면에 계속)

화목한 가정을

경쟁보다는 협동, 기적을 만드는 인내와 작은 노력 필요
이기는 법과 지는 법, 밥상머리에서 사랑과 격려 연습해야

가정의 달 기획

1. 효(孝) 2. 부부 3. 가정 4. 스승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다. 그만큼 가정의 화목은 중요하다. 그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정치도, 경제도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다. 가정은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이 먹고, 숨 쉬고, 느끼고, 배우는 공간이다. 전문가들은 “깨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인격이 나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성경에서도 가정의 화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잠 21:19),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 편집자주



김도일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하나. 경쟁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교육

화목은 언제 깨지는가? 화목은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이다. 우리는 조화와 어우러짐이 자연스럽게 구현될 때 평강을 느낀다. 화목을 이루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화목이 깨지는 곳에는 대개 ‘경쟁’이 있다. 물론 선한 경쟁은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을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경쟁은 급세 관계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사교육에 자리를 빼앗기는 이유는 학교에서조차 경쟁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학교에서도 경쟁을 조장해 성적순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를 우선시 한다면 족집게처럼 답을 집어주는 학원의 일등교사에게 의존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고 다시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곳에서 경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적지 않은 수업료를 따로 내면서까지 말이다.

핀란드 공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들은 학교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열등생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을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팀을 이루게 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모임을 주선한다. 공부를 수월하게 하는 이들이 잘 못하는 친구를 돕게 한다.

“과외 선생은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오

히려 중간 정도 되는 선생님이 제격”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한 최우등생들은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말한다. 과외 수업을 할 때도 “이까? 쉬워. 아주 쉬워. 그냥 시간 내서 풀면 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다 가온갖 노력 끝에 중위권 대학을 들어간 과외 선생의 말은 다르다. “아, 이거 어렵지. 나도 어렵더라.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면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 하면서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노하우를 전수한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가정교사에게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공부 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의 위로를 주고 한 단계씩 같이 걸어 올라가며 공부를 사키는 편이 높은 곳에서 아리 오라고 손짓하는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핀란드의 공교육으로 돌아가 보자. 결국 핀란드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소수의 최우등생을 키워내는 것에 두지 않는다. 열등한 학생들을 또래 학생들이 도움으로써 전체 학급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 결과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고, 수학능력도 뛰어난 국가가 되었다.

가끔 고등학교 교문에 ‘000, 일류 00대학에 합격’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곤 한다. 사실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을 통해 학교의 수준을 홍보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일류대학 입학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수많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만 주는 것은 아닐까? 왜 학교는 이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특정 대학 몇 개에 합격한 사실을 지나치게 광고하는 일은 참으로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도 경쟁을 넘어서 모두가 화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부는 잘 할 수도,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핀란드처럼 우등생이 열등생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도와주다가 서로 배우고 협동하고, 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상상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둘. 프로방스의 기적도 작은 노력에서부터

프랑스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장 지오노라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

는 책이 있다. 그 책에는 대지와 인간이 합일을 이룬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단 한 사람의 외로운 노력으로 본래 황무지였던 프로방스가 거대한 숲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본래 프로방스 지역은 숲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황량함만 있던 곳이었다. 아생 라벤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황무지였다. 그곳이 한 순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땅에 구멍을 내고 작은 도토리 열매를 그 구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백 개의 도토리를 넣으면 반만 살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반타작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 작은 도토리가 자라서 큰 떡갈나무가 되려면 적어도 삼십년을 기다려야 한다. 2만 그루의 떡갈나무를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은 1910년부터 4만 개의 도토리를 땅에 심어야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땅에 묻어놓은 도토리를 야생동물들이 찾아와 열매만 속 빼먹곤 했다. 그에게 그 일은 분명 환란이었다. 성경구절이 생각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롬 5:3-4).

다람쥐가 와서 도토리를 먹으면서 뱉어놓은 침과 배설물이 다른 도토리들을 자라게 했다. 하나의 도토리가 없어지는 일이 다른 도토리들에게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은 힘들어도 환란 중에 즐거워하고 노력하고 기다렸다. 인내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 인내는 멀지 않은 미래에 보게 될 커다란 떡갈나무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환난→인내→연단→소망’의 공식을 잘 설명해주는 인생 공식이다. 장 지오노가 쓴 이 작은 책은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 밭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었다. 황무지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도토리를 심고, 사랑으로 가꾸고, 인내하면서 그 작은 열매가 자라나기를 기다리다보면 어느새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 동지를 틀게 된다. 황무지는 비옥한 땅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희망과 행복을 노래한다. 이제 프로방스를 황무지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프랑스 남부지역을 여행하는 이들은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자연을 연상한다. 우리나라에도 프로방스라는 지명을 따서 생긴 식당만 수백 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은 노력에서 비롯됐다.

화목을 말하는 사람은 장 지오노의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워내기 위해 땅을 사랑하고, 공기를 사랑하고, 도토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자식 다루듯이 사랑할 때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창출된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

화목(hamony)의 근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근원적 화목, 혹은 실존적 화목이라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그 누구와 화목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할 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화목은 적절한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화목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가정은 화목을 경험하는 장(場)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가정이 안전과 화목을 보장해주는 신앙의 울타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다시 가정을 사랑을 실천하는 화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교육적인 입장에서 네 가지 화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만드는 것이 최우선



을 갈구한다. 장 지오노는 사랑하는 나무들과 대화하면서 그 나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냈다. 나무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환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오노는 사람과 나무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모두 한 그루 나무를 심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화목을 이루는 프로방스의 비밀을 터득하게 되면 모두가 화목하게 된다. 아름다운 프로방스도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조화로운 삶, 화목한 삶, 나와 네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셋. 게이츠가 게이츠에게

세계 최고의 갑부 가운데 한 명인 빌 게이츠 부부가 거액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을 보면,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는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TED(TED) 강연에 참석해 자녀 양육법을 공개했다. 게이츠 부부는 자신의 두 딸과 아들에게 부모의 유산없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펼쳐가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산보다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신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게이츠 부부는 “유산에 대해 아무 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 스

스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 이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2014년 3월 20일자, 경향신문)

최근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게이츠가 게이츠에게>라는 책을 썼다. 이제는 억만장자가 된 아들 게이츠에게 어릴 때 준 교훈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가 전하는 삶과 자녀 교육에 관한 체험적 교훈이다. 자신의 팔십 평생을 돌아보며 쓴 자녀 교육에 대한 회고록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 메리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아들 빌 게이츠 등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담과 함께 게이츠 집안의 자녀 교육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실천했던 게이츠 가족을 비롯한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할 소중한 삶의 가치와 교훈을 이야기한다. 빌 게이츠 시니어는 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우리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하나이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인상 깊은 세 가지 교훈을 소개한다.

첫째, 과감하게 나서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 웃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늘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나서는 삶의 태도는 진정한 관심을 배우는 것이다. 관용이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이해와 배려를 의미한다. 셋째, 인생에 있어서 중

요한 것은 이기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는 법과 물러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화목이란 결국 ‘같이 살아가는 동행’ 아닐까?

넷. 밥상머리에서 시작되는 화목

요즘 밥상머리에서 식사를 통한 만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이런 삶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 서양 사람들이 밥상머리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일이 잦아진다고 한다. 어른이고 아이고 밥을 먹어야 뇌가 작동하고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삶을 풍성하게 하고, 힘을 불어넣어 준다. 최근 뇌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봐도 그렇다. 빈민가에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은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뇌발달 영양결핍에 걸려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한다.

밥상머리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일으키는 힘을 제공하는 ‘격려’라는 비타민이다. 이 격려 비타민은 삶을 이루만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격려는 관심 밖으로 내몰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연약함과 무의미함’에서 해방시켜 준다.

캐빈 밀러의 <격려>는 이런 의미에서 생수 같은 신선함을 준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크린에서 만났던 생명력 없는 얼굴들이 아니다. 실제 입냄새와 땀냄새가 나는 사람을 자신의 면전에서 대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면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

주변 사람들을 손님으로 보지 않고 식구로 보고 다가가 “참 멋진 모자를 쓰셨네요. 잘 어울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밥상머리에 있다. 격려를 실천하고 연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주일에 몇 번 밥상머리에서 가족들을 대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현대인들이 많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 격려를 주고받는 것은 어떨까. 직장 동료들 식구로 대해야 한다. “오늘 옷 색깔이 아주 좋은데요? 제 기분까지 행복해집니다.”라는 간단한 격려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한다.

나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재미있었어요”라는 말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전에는 은혜 받았다고 많이 말을 했으나, 요즘 세대는 재미있다는 표현이 예전의 은혜 받았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요즘은 감성세대인가 보다. 격려는 거룩한 관심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

경쟁보다는 힘들어하는 이들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화목의 교육현장으로 만들고, 시간이 걸려도 작은 나무를 키워내려는 노력을 했던 장 지오노처럼 식물 나무와 인간 나무를 심고, 게이츠처럼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이기기도 지기도 하는 인생의 평범한 진리를 배우게 하고, 밥상머리에서부터 사랑과 격려를 연습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화목의 나무가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풍성한 5월, 사랑 싹트는 ‘강동 온누리교회’

차세대부터 어르신까지, 영성에서 건강까지 챙긴다

어두컴컴한 커튼 너머로 여러 갈래의 선들이 가득 꽂혀 있는 기계 한 대가 놓여있다. 초음파 기계다. 커다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의사 청년과 마주했다. 갑상선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를 위해 목에 감은 스카프와 목걸이를 풀었다. 목 끝까지 채웠던 셔츠 단추도 풀었다. 차가운 기계가 목에 와 닿았다. “앗 차가워” 흠칫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 하며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래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 의사 청년의 옆모습과 새카만 천장을 번갈아가며 응시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을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해하고 있었는데 의사 청년이 입을 뗐다.

“물혹이 보이긴 하는데, 큰 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검사실을 나왔다.

이 사연은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한 무료 초음파 검진을 받은 A성도의 이야기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풍성한 5월 사랑이 싹트는 강동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무료 초음파 검진을 받기전 혈압을 재는 성도들.

강동 온누리교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3월과 4월에 큐티스쿨과 큐티모임을 열어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익히도록 도왔다. 선교정신 고취를 위해 지난 12일에는 양화진으로 소풍도 다녀왔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물려준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겠다고 다짐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난 17일에는 무료 초음파 검진을 실시했다.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강동 온누리교회 청년의료팀 ‘루아흐(하나님의 생기관뿔)’가 발 벗고 나섰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었지만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검사는 마감시간이었던 오후 2시가 넘도록 진료신청자가 많았다. 이날 92

명의 성도들이 무료초음파검진을 받았다.

이선주 집사 이야기

무료 초음파 검사는 작은 행사지만 검진을 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이선주 집사는 지난해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한 무료 검진을 받았다. 교회 왔다가 시간이 남아 받은 검사였다. 그런데 그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혹이 너무 많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갑작스런 이 집사는 당장 대형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갑상선암여포성암이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녀였기에 크게 놀랐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가 그랬단다.

“조금만 늦었다더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의 삶이 달라졌다.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실시한 무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강동 온누리교회는 욕심쟁이

강동 온누리교회는 무료 건강검진 외에도 성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가정을 돕는 차세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수요오전여성예배에서 경청, 공감, 인내를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27일에는 ‘부모 vs 학부모’를 주제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자녀 이해를 돕는 세미나도 풍성하다. 3주(14일, 21일, 28일)에 걸쳐 ‘비폭력대화 이해하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6일과 23일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운숙 박사를 초청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게임중독 예방과 가정의 행복’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대학부도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성년의 날 주간에 맞아만 스무살이 된 청년들을 위해 성인식을 열었다. 케냐 선교사이며 코스타 유명강사인 임은미 선교사가 성년이 된 청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특정 연령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행사를 준비한 강동 온누리교회의 배려가 돋보인다. 차세대부터 어르신까지, 영성에서 건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 강동 온누리교회는 욕심쟁이다.



목회칼럼 이무웅 장로(강동 온누리교회)

벌써 5월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버렸다.

내 믿음의 시작은 가정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동참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1992년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다. 당시 12가정은 자녀들까지 포함해 매 주일마다 만나서 기도모임으로 시작하고 밥해 먹고 같이 자고 뒹굴었다. 그렇게 2년을 보냈다. 겉으로 말쑥해 보이던 가정들의 내면이 들춰지고 상처가 드러났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7주 과정이 만들어졌다. 섬기던 12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 그 12가정이 모두 목회자로, 장

로로, 주님의 사역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있음에 감사하다.

강동 온누리교회로 부름 받아 오고 보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관심이 가게 됐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위치해 있는 천호동의 특성상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눈길이 갔다.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캠퍼스 교회의 실정이다. 그렇다고 그 분들을 놓칠 수 없었다. 무작정 모임을 주선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공동체를 만들었다. 어르신들이 서로 알고가고, 공동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현재 약 30-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시니어공동체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주일 예배 전에 큐티스쿨과 큐티나눔방을 열었다. 어르신들이 말씀으로 더욱

가정은 가장 작은 천국공동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만든 모임이었다. 10일에는 어르신들이 비전헌금 특순으로 섬기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 달 이상 매 주일마다 특순연습을 했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12일에는 양화진과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시니어 봄 소풍’도 다녀왔다.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 기독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를 빼놓고 가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가정의 핵심인 자녀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어린이주 일에는 강동 온누리교회에 입점해 있는 내비쇼 핑몰의 공간을 빌려 어린이동산을 마련했다. 에어바운스, 범퍼카, 키즈라이더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부모들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부모vs학부모, 비폭력대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중독 예방과 가정의 행복 세미나를 진행했다. 차세대 각 부서별로 매 주 어머니 기도모임도 하고 있다.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이 성경통독과 중보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다. 유치부에서는 반별 학부모심방을 통해 각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천국공동체다. 부부간, 자녀간, 부모간, 형제간의 모든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아름답고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바로 세우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

청소년 섬기러 순이 간다!

산본안산공동체 A3순 성도들이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이하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전도사가 되기로 자청했다.

산본안산공동체 A3순 순원들이 하나로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쇼 '바탕색'을 개최했다. 토크쇼 바탕색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됐다. 정주호(스타트레인 대표), 이승훈(AI&C 대표), 뮤지컬배우 임진웅 등이 강사로 출연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산본안산공동체 A3순 성도들이 실시한 이번 사역은 그 자체로 매우 뜻 깊다. 공동체가 아닌 순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역이라는 점이 의미 있다. 산본안산공동체 A3순 성도들은 이 사역에 대해 호평이 쏟아지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숨은 땀방울과 눈물이 적지 않다.

산본안산공동체 A3순 성도 9명은 하나로 쉼터와 직접 접촉해가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어떻게 채워주면 될지를 고민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절한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는 일념은 9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원이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토크쇼 '바탕색'이 개최되기까지 산본안산 A3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어디 한 곳 녹아있지 않은 곳이 없다. 집이 멀거나 직장 일로 참가가 어려운 4명은 중보기도로 섬겼고, 나머지 5명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임을 갖고 토크쇼를 준비했다.

그만큼 힘들었지만 적은 인원이 준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하늘을 찔렀다. 순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새겨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산본안산공동체 A3순이 토크쇼를 하게 된 계

산본안산공동체 A3순, 청소년쉼터 하나로와 토크쇼 개최



A3순 성도들과 한라로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토크쇼 '바탕색'.

기도 재밌다. 순모임을 하면서 비전을 나눴는데 순원들의 마음이 ‘청소년을 섬겨야겠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순원들의 비전을 하나로 모으고 보니 가장 가까운 곳에 청소년 쉼터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곳이 바로 하나로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역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이번 사역이 의미 있는 이유가 또 있다. 사실 토크쇼 '바탕색' 같은 경우 하나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산본안산공동체 A3순원들이 도와 탄생한 것이다.

토크쇼 이름이 '바탕색'인 것은 '청소년들의 밑그림 위에 세상적인 색깔이 아닌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가치를 입히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산본안산공동체 A3순의 청소년 섬김은 이것

으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하나로 청소년들의 필요를 찾아 꾸준히 섬길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작은 콘서트장을 임대해 전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들

토크쇼 '바탕색'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어떨까.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는 토크쇼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강의를 듣고 곧장 운동을 시작하는 등 청년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들이 감지됐다.

“3개월 공부한다고 성적이 안 오르지만 3개월 운동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갖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세요. 춤이든 노래든 말이예요.”

3주 동안 진행된 토크쇼에서 나온 강사들의 주옥같은 메시지다. 토크쇼 '바탕색'은 작은 행사였지만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 강의 들은 청소년들이 곧바로 운동을 시작했고,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평소엔 질문하는데 관심이 없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육자 소장(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은 “3주 동안의 시간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청소년들이 꿈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간증



/ 이승훈 집사(A3순 순장)

순종해서 할 뿐이었다

지난 겨울,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줄어드는 인구와 그들을 소외하는 국가의 정책을 보며 더욱 애절한 마음이 들었던 때였다. 때맞춰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는 어릴 적 친구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다.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는 주제였다. 그리고 지난 4월 고난주간십이예배 때에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는 예수마음교회 명성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몸으로 청년과 청소년을 섬겨야 한다는 강한 명령을 받은 것 같았다.

순모임을 통해 우리 산본안산공동체 A3순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 결손가정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 꿈학교를 구체적으로 섬길 마음과 방법을 찾았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이며, 친구이고, 멘토라는 사실을 깨닫고 5월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의 친구이자 인생의 롤 모델, 멘토가 되어줄 이들을 초청해 토크쇼를 열기로 했다. 형식은 강의를 듣고,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바탕색이 되라는 의미로 주제를 ‘이야기 토크쇼-바탕색’

으로 정했다.

좁디좁은 인맥을 동원해 재능기부로 섬겨줄 강사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뽀빠’와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타트레인 대표 정주호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다. 감사하게도 바쁜 일정 중에도 하나로 아이들을 위해 스케줄을 비우고 오겠다고 하셨다. 얼마 전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원스를 끝내고 다음 작품을 연습중인 임진웅 집사님께도 연락을 드렸다. 5월 12일에 태어날 둘째 딸 출산을 앞두고도 흔쾌히 토크쇼의 강사가 되어주시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수막과 물질, 기도로 후원해주신 김인균 집사님, 공동체 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일정상의 문제로 이밖에 모시지 못한 두 분의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순에서 섬길 것이 아닌 공동체에서 감당할 사역”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

면 사람의 숫자나 크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에게 섬기는 마음을 붙여넣어 주셨으니 순종해서 할 뿐이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 마음 가운데에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

순 내에도 뜻하지 않은 선순환이 5월 내내 있었다. 관사님들도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웃리치를 할까요? 가을에는 기차여행을 갈까요?”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전체 인원이 9명밖에 되지 않는 순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다. 청소년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다. 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이 부여됐다.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싶다. 이 사역이 이 땅의 청년과 청소년을 주 안에서 귀하게 세우는 작은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신데요”

전도대상자 356명 중 320명 결신하거나 긍정 답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준비한 가장 값진 선물이 공개됐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였다. 지난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올랐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자녀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아버지를 보고 눈물 흘리는 딸,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결심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아들... 그야말로 자녀들이 준비한 천국잔치였다. 전도대상자 356명 중에 320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이제 믿지 않는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는 부모를 전도하는 가장 탁월한 전도방법으로 각광받을 만하다. 그 풍성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어르신이 결신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8일 저녁,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 참석하러 온 가족들이다.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온 가족들의 모습이 단란해 보인다. 어떤 자녀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축하며 교회로 모셨다. 그렇게 어렵게 발걸음을 한 어르신들을 봉사자들이 백만 불짜리 미소로 반겼다.

여기는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가 열리는 본당. 촛불과 예쁜 장식들로 꾸며진 원형테이블이 인상적이다.

교회가 낯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쁘다.

“온누리교회가 뭐하는 교회여?”

“오늘 여기서 뭐하는 거?”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공세에 자녀들이 신이 났다. 부모님께 성심성의껏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박윤영 자매는 오늘 외할머니와 이모할머니를 초대했다.

“두 분 모두 혼자 생활하세요.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던 외할머니가 한 마디 거들었다.

“그 조그맣던 아이가 자라서 이 할미를 교회에 불러주니 참으로 기특하고, 고맙네요.”

오늘 여기 모인 다른 가족들도 박윤영 자매와 같은 반응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교회로 모셔서 행복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초대가 고맙다.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든 원동력은 자녀들의 중보기도다. 이번 맞춤전도집회에 부모님을 초청한 자녀들은 중보기도를 하고 또 했다. 집회 당일에도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자녀들은 눈물을 뿌려가며 부모님

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였다.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저녁 6시,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는 장로들이 발 벗고 나설 차례다. 자녀들은 본당 2층에 올라가고 예쁜 원형테이블에는 초청된 부모들과 온누리교회 장로가 함께 자리했다. 이번 맞춤전도집회에서 장로들이 조장으로 섬기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역시 온누리

편안했다”면서 감사인사를 했다.

부모님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까지

저녁 7시, 행사가 시작됐다. 퓨전국악 그룹 가아랑이 포문을 열었다. 익숙한 국악이 흘러나오자 부모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는 요청자 자녀들의 위심공연이 막 올랐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귀여운 공연을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

릴 땀 서운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부모들은 아버지날이나 각종 행사에 얼굴은 안보여주고, 돈만 부치는 자녀들에게 서운하다고 했다. 배우 오미희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낭송했다. 아버지의 희생을 표현한 시를 낭송할 때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들이 보였다. 다음 순서는 부모를 초청한 자녀들의 인터뷰 영상 상영이었다.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훈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서 부모들에게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권면했다.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의 대미는 결신카드 작성이었다. 조호영 목사의 안내에 따라 부모들이 결신카드를 작성했다. 부모들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어린이처럼 좋아했다. 박종길 목사의 축복기도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다. 행사 한 순간, 한 순간을 놓치지 아끼울 정도로 웃음과 눈물, 행복과 감동이 가득했다.

믿지 않는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는 356명의 부모들이 참석했다. 그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부모가 248명(70%), 긍정적 대답 72명(2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보다 9%가량 열매를 더 맺었다.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가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다. 부모를 전도하는 탁월한 전도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제 후속프로그램이 시작된다. 6월 6일 전도대상자와 가족들이 ‘3대가 함께하는 기차여행’을 간다. 세례교육과 세례식도 예정돼 있다. 부모님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까지 천국잔치는 계속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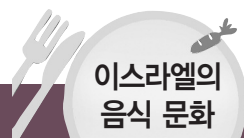
교회 장로들답다.

52명의 장로들이 테이블에 앉아 부모들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눴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혹시라도 불편한 것이 없는지 계속 물었다. 온누리교회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이윤정 어르신은 “교회에 처음 와서 어색했는데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써주시고 배려해줘

냈다. 박진아 작가의 샌드애니메이션 공연도 호평을 받았다.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공연을 매우 신기해했다. 배우 강석우의 색소폰 연주,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의 노래가 이어졌다. 부모들은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개그맨 이홍렬의 공감토크쇼는 부모와 소통하는 장(場)이었다. ‘금쪽같은 내 새끼’라도 이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류모세 선교사



웰빙음식

나라와 문화에 따라 즐겨 먹는 수프를 살펴보는 것도 무척 흥미롭다. 한국에 미역국, 된장국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렌틸콩 수프가 있다. 렌틸콩 수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아랍어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기(①) 위해 제시한 팔죽이 바로 렌틸콩 수프다. 안식일 날 유대인 가정에서 초청을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이 렌틸콩 수프가 나온다. 인도가 주산지인 렌틸콩은 납작하고 긴 꼬투리 안에 불룩렌즈 모양의 씨앗이 2개씩 들어 있는 일년생 콩과 식물이다. 렌즈(lens)의 어원이 된 콩이라고 해서 '렌즈콩'이라고도 불린다.

렌틸콩은 요즘 흡수팽을 통해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웰빙 음식으로 소개되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렌틸콩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엽산, 비타민 B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항산화 기능 역시 뛰어나다. 이 밖에도 바나나의 10배나 되는 식이섬유로 인해 변비나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미국의 건강전문지 <헬스(Health)>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한국의 김치, 일본의 낫토, 그리스의 요거트, 스페인의 올리브기름, 인도의 렌틸콩을 선정했었다.

렌틸콩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먹는 콩이 바로 병아리콩이다. 병아리콩은 chickpea 혹은 이집트콩이라고 불리는데, 생긴 모양이 병아리 얼굴을 닮아 병아리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중동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재배되어온 병아리콩은 효능이 뛰어난 세계 10대

건강 식품으로 영양과 효능이 풍부하다. 병아리콩은 후무스의 주된 원료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스 형태로 만든 후무스와에도 병아리콩을 곁들여 동그랑땡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긴 팔라펠을 즐겨먹는다. 팔라펠을 각종 야채와 함께 피타 빵 속에 집어넣은 샌드위치는 이스라엘에서 서민들이 가장 즐기는 한 끼 식사라 할 수 있다.

치즈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다. 흔히 치즈와 요거트를 생산하는 '낙농국가' 하면 불가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을 들겠지만 이스라엘도 결코 이들 국가에 뒤지지 않는 낙농국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별칭이기도 한데, 여기서 '젖'은 양과 염소의 젖을 가공한 각종 유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 이스라엘의 슈퍼마켓이나 호텔의 뷔페에 가면 사람이라면 수십 종류의 치즈와 요거트 제품으로 인해 놀라게 된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음식장결법인 코셔는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문화를 특징지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코셔를 따르다 보니 이스라엘의 호텔과 레스토랑은 어디를 가든 메인 메뉴가 딱 3가지, 즉 닭고기, 소고기, 생선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셰프에 따라 조리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메인 메뉴는 이 3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메인 메뉴가 제한적이라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사이드 메뉴인 야채와 과일 및 치즈 및 요거트를 이용한 요



렌틸콩.

리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산 토종 생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고 또한 석회가 많아서 수도물은 식수로 마시기가 힘들다. 하지만 생수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스라엘에는 에비양을 비롯한 수입 생수의 수요가 거의 없고 이스라엘 산 토종 브랜드 생수의 수요가 압도적이다. 골란고원을 수원지로 하는 '에텐' 생수, 엘리사가 깨끗하게 했다는 '여리고' 생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광야의 '엔게디' 생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생수다. 약진성인 한국의 생수와 달리 이스라엘의 생수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약알칼리수로서 풍부한 미네랄 함유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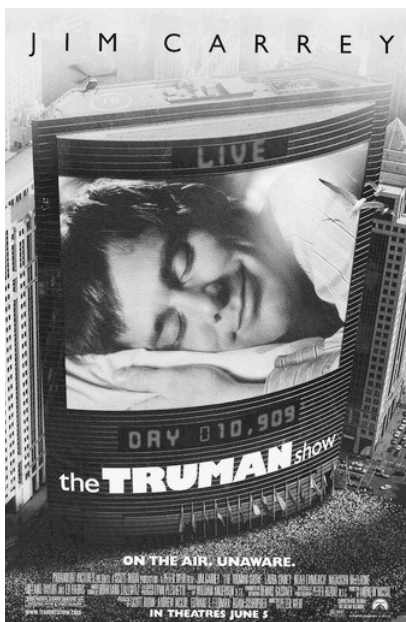
이처럼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칼로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중해식 식사와 함께 품질 좋은 생수의 산지인 탓에 이스라엘은 매년 일본과 수위를 다투는 장수국가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스라엘을 찾는 순례객들은 비록 짧은 1주일간의 성지순례이지만 이를 통해 웰빙 음식의 진수를 제대로 진하게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류모세 선교사와 함께 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 구약성경투어: 7월28일-8월5일
타기-그리스 신약성경투어: 8월4일-11일
문의: 010-4902-1022



영화 추천 조병홍 목사(남양주C공동체)

the TRUMAN show
(짐캐리 주연, 1998)

누구나 한번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상을 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벌어지는 사건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상상을 해 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 옷 스타일, 자동차의 종류와 색깔, 흡수팽에서의 구매결정 등이 자신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조종당한 결과라고 한다면 어떨까. 행복하고 슬프다고 느끼는 감정의 본질, 꿈과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상황이 나의 주관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지도 선택과 결정을 조종당한 결과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과 아이디어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 바로 '트루먼 쇼'이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트루먼 버뱅크(짐캐리 역)는 자신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가 살아 온 30년은 방송국에서 기획하고 설정한 삶이다.

그가 세상이라고 믿는 공간은 거대한 세트장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연기자와 스태프다. 5천대의 숨어있는 카메라는 버뱅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일거수를 촬영했고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그 장면을 시청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영화는 거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를 기업과 미디어의 상술과 마케팅에 생각과 마음을 조종당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쩌면 우리도 트루먼처럼 거대한 세트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식과 경험의 세트장, 가치관과 꿈이라는 세트장, 자유의지와 에고(ego)라는 삶의 세트장에서 살아가며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트루먼의 꿈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탐험기이다. 그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설정과 조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세트장을 박차고 진짜 세상으로 나간다.

트루먼은 갈릴레이와 콜럼버스를 연상시킨다. 갈릴레이와 콜럼버스가 없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갈릴레이와 콜럼버스는 누구일까? 나의 세트장 벽이 뜯겨지고 그것을 박차고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이 만들어 준 세

트장,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트장 벽을 뜯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세트장이 깨지고, 부서진 벽은 바로 십자가의 문이다. 십자가의 문을 통해 진실한 세상을 발견하고, 삶의 주인공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깨어진 십자가의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주 본다. 세트장 생활이 익숙하고 편해서인지, 세트장 밖으로 나서기가 두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트루먼은 세트장을 벗어나며 기획자들과 시청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말을 한다.

“오늘 하루도 다시 못 만날지 모르니 하루치 인사를 미리 해 두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이 말을 들은 기획자들의 표정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표정이다. 우리도 세상과 나만의 세트장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며,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양운철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공무원 대상으로 열리는 ‘통일학교’

북한선교학교, 교회 넘어 정부부처까지 확대

북한선교학교가 교회를 넘어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전해졌다. 지난 14일부터 5주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통일학교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선교학교가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로 지경을 넓히면서 명칭을 통일학교로 바꿨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일학교 세미나에서는 북한사람 이해하기, 통일의 이상과 현실, 탈북자를 통한 북한선교, 최근 북

한사회 변화상, 통일선교를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을 배우고 토론하고 있다.

통일학교 세미나를 기획한 김태훈 서기관(세종청사 연합선교회)은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통일 정책을 만들 실무자들이 먼저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온누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 세미

나를 개최하기까지 온누리교회의 수고가 있었다. 예산도 절반이나 후원했고, 온누리교회 북한선교학교를 통해 검증된 유수의 강사진도 섭외했다.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조장들도 대부분 양재와 대전 온누리교회 하나 공동체 성도들이 맡고 있다. 세종시 소재 10여개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경훈 장로(OCC공동체)는 “통일은 우리의 최대 영적 전쟁이 될 것”이라며 국가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문의: 김태훈 통일선교부장

010-4319-069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송영태 장로 한국해비타트 상임대표 취임

27일 서빙고 두란노홀서 취임감사에배



송영태 장로

송영태 장로가 한국해비타트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지난 22일 장충교회에서 열린 ‘한국해비타트 상임대표 취임식이 있었다. 협력 교회 목사, 유관 단체 대표 등 한국해비타트 임직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상임대표 취임식에서 송영태 장로는 “한국해비타트의 사명과 비전을 위

해 윤리 경영에 힘쓰면서 성장하겠다”고 밝히고 “교회와 협력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누리교회에서도 송영태 장로 한국해비타트 상임대표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다. 5월 27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는 저소득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비영리 단체다. 한국해비타트는 지금까지 국내 4천여, 해외 1만여 가정을 위해 집을 짓거나 수리했다.

NGO 더멋진세상, 미스코리아 이사라 홍보대사 위촉

지난 1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이날 2014 미스코리아 미(美) 이사라가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배우 강석우에 이어 미스코리아 이사리를 세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재훈 목사는 “앞으로 NGO 더멋진세상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고, 미스코리아 이사리는 “부족한 저를 홍보대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한다”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화답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5월 26일부터 환경세미나

19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 동안 환경세미나가 열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오후 7시30분에 시작된다.

환경세미나에서는 창조세계에 대한 성서적 이해(김도훈 장신대 교수), 물과 그 위기의 현실에 대한 이해(독고

석 단국대 교수), 몸과 마음, 지구를 살리는 생명밥상(유미호 교회환경연구 소장),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습관(공동 워크숍)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독고석 탐상 010-7525-7158

최혜옥 사역자 02-3215-3434

온누리 아트비전 서빙고 전시회

온누리교회 미술인선교회 아트비전에서 5월 말까지 전시회 ‘IN CHRIST’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아트비전 소속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받은 말씀과 영감을 주제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서빙고 커피숍에 전시되어 있는 아트비전 작품 판매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 아트비전에서는 매년 5월과 12월 정기연합전을 열고 있다.

아프리카와 네팔 위한 후원콘서트

NGO 더멋진세상 통해 전달 예정

아프리카와 네팔을 돕기 위한 후원콘서트가 열렸다.

지난 1일 금요일아트홀에서 조혜린 성도(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첼로 독주회를 열었고, 19일에는 이지원 성도(양재 온누리교회)가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후원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아프리카와 네팔에

를 입는 네팔에 전달된다.

조혜린 성도는 “네팔의 지진피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했고, 이지원 성도는 “작은 정성을 모아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네팔 사람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Outreach 안전교육 실시

여름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1차 교육은 6월 5일 금요일 19시 30분부터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2차 교육은 6월 12일 19시 30분부터 양재 온누리홀에서 열린다. 대상은 차체

대, 대청, JDS, 아웃리치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유관기관 담당자, 국제부다. 강사는 김진대 목사(한국외국관리재단 사무총장)가 맡는다.

문의: 맹창수 간사(02-3215-3208)

제1회 어르신들의 날 행사 개최

지난 16일 용산가족공원에서 ‘제1회 어르신들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약 5천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표창을 하고, 다양한 공연들

도 선보였다. 축석 장기자랑도 펼쳐져 흥을 돋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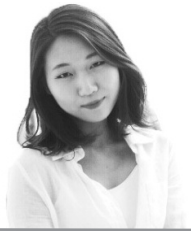
차매김진, 한방침 시술, X-레이 검진 등 건강 프로그램과 발마사지, 헤어, 지압 등 미용봉사도 실시됐다.

서빙고 만남의 잔치

날짜: 5월 31일(주일) /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시온홀(B2)
대상자: 3월 15일~5월 16일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서민호	박소정	김포 장병철 신인수	윤승지 박선홍 한홍진 이동현 김미란 윤기숙	서대문 도공수 백경남 명성환 유수현 우종국 김현주 김호신	김윤정 양정순 김세리 이선희 홍계원 장주리 김기정 김영균 육수연	이수지 천향미 양희원 유백은 김세자 박정서 이지현B 박윤희	영등포구로 유인경 박주한 남가람 최덕교 오주현 김미나 호유미	이촌 최옥자	조아진 유경민	김범준 김은주 정재현 김민정 이창선 신덕수 전선민 남지아 소미현 김석원 최미진 박소영 이종구 이혜경 김보경	
강서 이현석 서진우 김자영 김상규 김소연 오영수 정건호 박경희 오종연	고양은평 김성경 안미훈 황희건 양태희 신우린 김은식	노원 백원희 신상현	마포 김일숙 최석훈 박상민 윤정선 신동원 장장용	서빙고 김윤수 박연희 한경애 조진숙 차현주 오윤희	성북 조두석 최지영 송호철 송옥선 김양원 최준영 장복순 최희규 정상호	양천 이은옥 김우정 정혜란 성준식 권성옥 송태호	용산 박상률 김정미 김성엽 이현숙 김승환 박우식 강종열	중랑 변은미 이요섭 최정갑 문석희 신선애	한강 정주안 이은화 신재영 이주영 박진호	OCC 최민희 김상현	강북 구은진 김진석 이상엽 김지수 안은주
강촌 윤지혜 정주영 이선주 서좌원 홍진석	조성익 강은정 노희정	동작 송영주 최정애 최은숙	북부리 이현화 조경자 정동현	성동광진 노영석		여의도 채진아	이수 이승하				

■ 양재 화요기도학교 수료 간증



/ 박은비 성도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나는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와 인턴생활을 하다 지난 3월에 그만두었다. 쉬면서 하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것들은 모두 해보려고 마음먹었다. 마침 기회가 되어 엄마와 함께 화요기도학교를 간 것은 나에게 큰 영광과 은혜였다.

강의를 통해 영적인 금금증과 목마름, 갈급함과 내 안의 문제들이 풀렸다. 살면서 풀리지 않을 것 처럼 보이는 문제들이었다.

강은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많이 바뀌었다. 설교를 듣는데 “나는 왜 당하고만 살았는가? 진작 알았다더라면 마귀한테 그 정도로 속고만 살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어릴 때도 정말 밝았는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어둠이 찾아왔다. 어둠이 덮여버린 내 인생을 한탄하며 두려워했다. 외로움에 지치고, 공허함에 빠졌다. 나는 유학생 생활이 그렇게 힘들 줄 꿈에도 몰랐다. 방황하며 내 몸은 망가졌고,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

사실 한국에 나온 이유 중 하나가 회복이 필요해서였다. 강은혜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아직도 놀리고 속고 살았을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

“악한 영들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물리치고, 악한 것들은 나를 괴롭힐 권세가 없나니 떠나갈지어다!”

간단하지만 힘이 있는 그 기도를 그동안 왜 못하고 살았는지 후회 되었다. 이제는 내 안에 평안이 돌아왔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오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평소에 대적하는 기도와 물리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요기도학교에서 대적기도와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었다. 자신감도 넘치고 얼굴도 더 밝아졌다. 아직도 미래를 몰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자신감을 회복했다. 용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도 얻었다.

계속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앞으로도 나와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 앞으로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고 싶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될 것을 선포한다.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 간증



/ 황동일 성도

축복은 경험할수록 더 커졌다

축복은 경험할수록 더 커졌다. 온누리교회를 통해 받은 축복은 더 그랬다.

일대일 동반자반을 하면서 양육자님과과의 만남이 나쁘지 않았다. 일대일 제자양육 시간은 매우 유익했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 비교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다. 그렇지만 매주 양육자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배우는 입장이었기에 숙제와 예습이 많으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숙제와 예습을 하든지 못 하느라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만 적어서 간 적도 많았다. 그냥 양육자님과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받는 것이 좋았다. 아마도 내가 양육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반자 과정이 끝나고 1년이 지났다. 주일 성수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015년이 시작되면서 나의 신앙적 비전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작부터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영적배가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면하고 있던 내 모습을 발견했다. 곧장 일대일 양육자반 교육을 신청했다.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은 나의 자만과 교만

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시간이었다. 성경적 지식을 통해 완전체로 무장하겠다는 나의 교만이 왜 그리도 창피하던지. 한 주 한 주 배우며 큰 계획 아래, 때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무릎 꿇게 되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경배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과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령 충만,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 사역 과목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내가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정마다 살아있는 장로님의 말씀과 예화, 영상들이 나에게 도전을 주었다. 양육자로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도 배웠다. 동반자를 어떻게 섬기고 가르쳐야 하는지도 배웠다. 무엇보다 동반자를 바로 세우는 것은 나의 하찮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동반자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열심과 진정으로 동반자를 양육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에게 축복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한다.

■ 대학청년부 Acts29 movement 사역 간증



/ 박소정 성도(허브공동체)

그곳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가 섬기고 있는 반석중앙교회는 전교인이 30명 정도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느낀 것이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찬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며 배운 것이 참 많다. 하나님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고 경험했다. 처음으로 섬긴 대예배 반주와 성가대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상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곳 학생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

반석중앙교회는 안양에서 유명한 평촌 학원과 귀인중학교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학생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세 명 밖에 되지 않는다. 수많은 학생들이 밤낮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삶 가운데 학생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

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반석중앙교회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공유했던 것처럼, 반석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은사와 재능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서로의 슬픔과 기쁨 또한 공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석교회 곳곳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반석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지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는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온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느끼고 또 느끼고 있다.

말려주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더욱 나누고 흘려보내고 싶다. 그곳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심겨지기를 기도한다.

■ OBC(Onnuri Bible Club) 갈라디아서 과정을 마치고



/ 김인옥 성도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먹고

갈라디아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어 참 기뻐다. 무엇보다 찬양이 있어 기뻐고, 정성들여 준비한 간식이 있어서 좋았다. 근무하고 곧장 퇴근하면 배고픈 채로 올 때가 많다. 그때마다 맛있는 간식과 김밥,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신 나순임 집사님 덕분에 배고픔이 없었다.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됐다.

공부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것이 많다. 그동안 나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있었는데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가슴에 깊이 와 닿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약속의 언약)과 첫 언약(모세와 율법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예수님의 언약)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점도 새로웠다. 율법 아래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바뀌어 바울의 예를 태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변함없는 그 크신 사

람이 바울을 통해 내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잘 것 없다. 너무나 작은 사랑이다. 하지만 효도는 흥내만 내도 아름답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든든하고 감사하다. 성경공부 한다고 교회로 향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세상에서 보낸 하루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했다. 은혜의 강기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과일을 먹는 시간이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시간이었다. 갈라디아서 7주 과정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조원들과 공동체 식구들과의 나눔과 교제도 좋았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되었다. 비록 나 하나는 약하고 불안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강해지고 완전해지는 것 같다. 항상 은혜로운 말씀으로 잘 지도해주신 이창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장로칼럼 박공 장로

일터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필요하다

나는 평소에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미국 직장에서는 신앙생활의 모범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했다. 관련된 책이 나왔다면 거의 다 읽었다. 사실 직장인 크리스천이라면 초산자든 경력 신자든 모두가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나 역시 직장 사역자로서 오랜 세월 고민했다. 그러던 중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무척 감사했다.

아마도 이 책이 우리 시대에 성경적인 세계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자는 일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복음과 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또 현실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은총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폭도 넓혀주었다. 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보다 경영을 잘한다는 것이 늘 마음이 아려왔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일반 은총 개념을 어느 정도 알지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의 일반 은총 교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세계관을 따라기도, 손을 쓸 수 없이 영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직장 일터에서 손을 맞잡고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남다른 길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 기독교 신앙이 일을 훌륭하게 해낼 힘과 자질을 준다는 사실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

과거에 나는 직장선교 활동 개념에서 크리스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일 자체에 대한

개념이 미약했다. 그러나 차츰 사람뿐만 아니라 일 자체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라도 들어서 쓰시고 있다는 계획을 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제와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일반 은총의 개념 확대로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기업과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에서 양성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 치우쳐 있어 현장 사역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교회 밖 일터 사역 단체들은 약 30여 년 전부터 활발히 직장사역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직장 신앙인들에게 많은 공헌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고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일부 일터 사역 단체에서는 최근에 교회 내 지원도 마련하고 있지만 접목이 잘 안 된다고 한다.

사실 나는 이 책에서 목사님 말씀의 메시지와 함께 애굽에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구원으로 불러내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를 주시면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정적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에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우리의 일터가 가나안 정복상황에 있을 때가 많다. 우리는 저자의 말대로 회사에서 신우회 참석하는 정도 선에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다. 그리고 동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 이후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권사칼럼 권순옥 권사(고양은평공동체)

사랑하는 여고동창생들에게

하리둘레나 가슴둘레나 비슷해진 친구들아, 비슷하게 늙어버린 친구들아. 육십 평생 사느라 수고했다.

부도남만 믿고 살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지. 그와 백년해로를 언약하고 섬기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힘겨루기 하느라 힘을 많이 뺐다고 했지? 그래. 그러다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내 마음은 어디 있을까를 수없이 외쳤다고 했지? 실은 나도 그랬어. 고비가 많았지. 다행인 것은 한겨레에 몰려왔다면 건달기 힘들었을 텐데, 하나하나 외주었기에 그 세월을 살아 오늘이 있다는 걸 믿어. 어느 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백기 들었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백했던 친구들은 그 이후 탄탄대로를 탔지. 요즘말로 대박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갔어. 감당하기 힘들었던 상황도, 내 자신도, 나를 중심으로 보았던 이 세상도,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지. 그 덕분에 달라졌고 여유도 누렸고 조바심치던 마음으로부터도 해방되었어. 내 아이를 주님의 아이라 하고, 내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고백도 하고, 직분도 받아 집사로 혹은 권사로 불리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이든 다 주님의 일이고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어. 기도도 잔뜩하고 싶다고 너도 나도 우리 기도원에 가잖아. 주 안에서 쉬고 싶다면 서. 그것도 말이 조금 안 되지 않나? 섬기는

삶이 우선이라고 했으면서 말이야..

나는 요즘 CGNTV 모니터를 하고 있어. 지난해 성지순례여행으로 터키와 그리스 를 다녀왔거든. 여행 중에 일행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뒤통가끼어있는 마음을 발견했어. 괜히 서운하고 그러더라. 와이파이가 터지는 호텔방에서 스마트폰으로 CGNTV를 봤어. 클릭하자마자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의 감동이란 다시 생각해도 박차기만 해. 매달 얼마밖에 안되지만 CGNTV를 후원하는 후원자로서 무척 기뻐고, 방송의 위력이 대단함을 그때 실감했어. 갑갑한 많은 이들에게 전파는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지. 아직도 그때 두근거려던 심장을 생생히 기억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모니터원에 지원했어.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 십일조가 아니라 십의 삼십의 오를 다 주님께 드리고 살더라. 많이 힘든지 아직울도 높고 기술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린 알잖아? 안타깝지만 방법을 모르니, 일단 중보기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단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주님이요, CGNTV 주인도 주님이시니까 길을 만들어 주시길 지생각하면서 말이야.

무엇을 믿고 산다는 것. 그걸 행복이고 자해라는 걸 삶으로 배운 우리는 복된 인생 아닐까? 이 땅에서 살 동안 믿음 꼭 붙잡고 살자. 고마워 너희들. 친구이며 또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이렇게 이야기 풀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신앙에세이 최성석 목사(이수공동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혹독한 신앙교육은 노방전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막내인 나를 유독 부흥회, 기도원 집회, 노방전도 등에 데리고 다니셨다. 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받은 신앙교육은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1992년이었던. 어머니는 늦은 밤 전철을 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나를 데리고 서울역 지하로 가셨다. 당시 나는 “오늘도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로 가지 않고 지하차도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다. 이윽고 트럭 한 대가 왔다. 트럭에는 식판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밥솥, 국통, 여러 가지 반찬통들, 롤처럼 말린 돗자리가 있었다. 그것들을 지하통로 한쪽에 옮겨 놓고 돗자리를 깔았다. 돗자리를 깔고 보니 예배당처럼 아늑한 예배 처소가 되었다. 몇 안 되는 봉사자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식준비를 마치자 저만치서 시키면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노숙자들이었다. 얼마나 찌지 않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석탄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양새였다. 거친 말투, 금세 싸울 것 같은 기세, 술에 취한 사람들, 어디서 싸웠는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사람까지... 그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몸이 경직되었다. 그들 옆에 있고 싶지 않은 생각마저

들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통로에는 그들이 뿔뿔이 벌어진 역한 냄새가 가득했다. “지구에 이런 냄새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했다.

나는 그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예배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게 퍼 놓은 돗자리에 신발을 신고 아무렇게나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고 자리에 올라갔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주변에 있는 스테프(선교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다. 또 어떤 이는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거나 청소를 했다.

그 모습이 놀라웠다. 나는 그들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와서 잠시 예배드리고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었다. 나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했다. 작은 엠페에 마이크 하나 겨우 연결해서 별다른 반주 없이 시작된 찬양을 열성적으로 따라 부르는 그들은 영락없는 천국을 맞본 사람들이었다. 찌지 않은 몸 에 신발까지 벗으니 냄새는 더 고약했지만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순간만큼 그들은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하셨을 것이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새찬송가 280장) 그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탄하고, 신음하며, 회개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됐다.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했던 나의 무지와 교만에 경종을 울리셨다.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 생각과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세운 잣대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도 고백하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을 덮은 구름입니다.

둘째, 구름은 무지의 구름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출 40:35).

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시나산 위에 올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던 모세가 왜 이 성막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줍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멀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무지의 구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지의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심각한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느 신학자는 무지의 구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관해 이해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도달하는 최종단계는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점을 알게 될 뿐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지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어떤 철학과 관념, 개념과 논리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두 깨달아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지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깨달을 수 없지만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구름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무지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도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출 40:36-37).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맴도는 분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 중심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왕궁에서 안락하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막의 길을 가면 함께 사막을 걷고,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 함께 고통당하시며 광야를 걷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려울 때 당했을 때 “어디 계십니까?”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과는 성막위에 떠있는 구름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왜 위를 보게 하셨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헬라어로 ‘앤드로포프’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은 회복의 구름, 무지의 구름, 인도하심의 구름입니다. 성막위에 임하셨던 그 영광스런 구름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0 : 무심코 쓴 화살에 죽은 왕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왕기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선지자다. 때론 ‘하나님의 사립’ (12:22, 13:1)으로도 불린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솔로몬 즉위 1등 공신 선지자 나단을 비롯해 유명, 무명의 선지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우리말 선지자(先知者)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예언자(豫言者) 역시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 말씀 가운데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예언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때로는 비유적 행동으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관련이 깊은 왕이 있다면 바로 아합 왕이다. 아합 왕은 열왕기상 17~22장에 나오는데, 17~19장에서는 엘리야가 전면에서 등장하고 그는 조연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20~22장에서는 아합 왕이 주인공이다. 엘리야는 21장 나봇의 포도원 때 잠시 나타날 뿐이다. 20장과 22장에는 엘리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아람(앗수르) 왕 벤 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다. 아합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나가 싸워 승리한다. 이듬해 봄, 벤 하닷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립’이 자기가 받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한다.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말씀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승리에 취한 아합은 벤 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다. 벤 하닷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사람이다(왕상 20:42). 따라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헛된 거드름만 피우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이 점을 지적한다. 벤 하닷을 살려주었으니 네 생명

으로 대신하겠다는 심판 선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20:43). 영어성경 NRSV는 “화가 나고 부루퉁해져서”(resentful and sullen)로 번역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은 이어지는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사려고 했지만 거절당한다. 그러자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다(21:4). 앞서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을 때와 동일한 반응이다. 화를 내며 빠진 것이다. 얼마후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 나봇을 죽인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그러자 아합은 왜 나봇이 죽었는지에 대해 묻기는 커녕 즉시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간다.

바로 이때 ‘여호와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21:17).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그의 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이세벨의 집안을 멸할 것이며,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지를 전했다. 아합은 엘리야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했다. 앞서 화를 낸 것과 대조된다. 그러자 다시 ‘여호와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아합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겸비했기 때문에 그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라는 집행유예 선언이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를 내며 빠치는 사람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신다. 만약 아합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났더라면, 죽을 때까지 겸비했다더라면 아마 아합의 인생, 아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는 우리에게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다시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번에는

남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 이스라엘의 아합이 연합하여 먼저 아람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때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여호와와의 말씀이 어찌하신지(22:5) 물어보기로 한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약 400명을 모아 그들에게 선제공격 여부를 묻는다. 이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외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패배를, 나아가 죽음을 예언했다. 오직 한 사람 미가야의 예언이 진정한 ‘여호와와의 말씀’이었다.

아합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다.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둔다.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아합의 마음은 찢찢했다. 미가야의 말이 사실일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한다. 대신 여호사밧이 아합의 왕복을 입고 나갔다.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속았다. 아람 왕이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아합 왕에게만 집중하도록 명령한다. 지휘관들은 아합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공격하려다 아합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아합을 놓쳤다고 생각한 순간, 어떤 아람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다. 영어성경 NRSV는 unknowingly(자기도 모르게)로, NIV는 at random(아무렇게나)로 번역했다. 무심코 당긴 활에 날아간 화살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던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었다. 도대체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기에 100% 명중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을 당한 아합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일러 군중으로부터 빠져 나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도한 출혈로 죽고 만다. 끝끝내 여호와와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재로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통회할 때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진다. 무심코 쏜 화살을 통해서도 말씀은 이뤄진다.